

자기상(Self-Image)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I) : 연령에 따른 차이

이 춘 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곽 금 주

오산전문대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에 걸쳐 일어나는 심리사회적 발달의 변화를 자기상 검사(SIQYA)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10개 지역에서 국민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7개 연령의 남학생 855명, 여학생 900명 모두 1755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기상 검사의 하위영역 중 7개 영역에서 7개 연령과 성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상태, 대처능력, 신체상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정서상태, 정신병리, 가족관계, 친구관계, 대처능력, 신체상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외 부가적으로 지역에 따라 3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정서상태, 대처능력, 신체상 영역에서 연령과 계층 간의 상호작용이, 그리고 가족관계와 신체상 영역에서 성별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제언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른 발달 과정에 비해 청소년기란 가장 변화가 큰 시기로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을 크게 아동기와 성인기로 나누어 볼 때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즉 청소년기라는 한 단계 안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적 과도기(developmental transition)가 있다. 질풍 노도(storm & stress)의 시기라고 소개하면서 청소년기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Hall (1904)은 Darwin의 진화개념을 빌려 청소년기를 설명하였다. 인간이 태어나 성장, 발달해 가는 과정은 오랜시기를 거쳐 인간이 진화해 온

단계를 반복(recapitulate)하는 것처럼 청소년기 발달은 최근의 문화(문명화) 단계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불과 몇년 사이에 학계나 정부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고조되기 시작했다. 청소년기 발달이 문화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문화권에 따라 청소년기의 특성이 다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진단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기초자료를 근거하여 앞으로의 청소년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기상(self-image) 검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 중 일부이다.

우선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걸쳐 일어나는 심리사회적 발달을 특히 자기상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은 인간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것이나 특히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바로 청소년기이다. 급작스럽게 변하는 신체적 외모와 생물학적 성숙, 또 이로 인해 충동성, 우울성과 같은 기분(mood)변화의 기복이 커지고, 가족이나 동료와의 관계가 영향을 받게 된다. 또 이러한 시기에 일어나는 사회적 환경변화는 다른 시기에 비해 그 개인에게 더 큰 힘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리적 변화를 보면, 6세 아동에서부터 16세 청소년 까지를 대상으로 기분 변화를 측정 한 연구에서 '고집세고' '무뚝뚝 하고' '안달내는' 기분은 청소년기 보다 어린 아동기에서 더 많았으나, '불행한', '슬픈', '우울한' 기분은 아동기 보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chenbach & Edelbrock, 1981). 이와 기분이 울적하다든지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10세 아동에서도 보고되긴 하나 그 빈도는 사춘기를 시작으로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10세 아동의 경우 10-12%가 잘 울려고 하고 기분이 울적하다고 보고하였으나 15세 정도의 청소년에서는 약 40%가 그러한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Rutter & Garnezy, 1983).

청소년기 사회적 발달에서 중요한 대인관계로는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를 들 수 있다. 청소년과 그 부모는 '세대 차(generation gap)'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과 그들 동료에 비해 부모와 그의 청소년 자녀가 더 유사한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단지 청소년들이 동료들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소위 '청소년 문화'(의상, 머리모양, 음악)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뿐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Kandel & Lesser, 1972). 그러나 다른 시기와 비교한다면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갈등이 커지는 시기는 분명하다. 물론 그 원인이 고전적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청소년기에 따르는 심리적 발달변화, 욕구(Blos, 1960; Hall, 1904)인지, 최근의 주장대로 부모의 중년기 위기와 같은 부모 요인(Hill, 1980)인지, 또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인지는 좀 더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변화에 의한 청소년기의 욕구나 충동으로 인해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갈등은 정상적이라는 초기 정신분석학자들의 견해는 이제는 더 이상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 부모와의 갈등이 문제가 되어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가출을 하고, 비행씨름이나 동료집단에 의존하게 되며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행동특성을 측정하고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스스로 지각하는 자기상을 측정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행동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이 대두되었다. 자기상(self-image) 또는 자기개념(self-concept)이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쳐 개인의 경험과 스스로에 대한 생각 등의 총체이다(Coombs, 1981). 충동통제, 정신적 적응,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응과 같은 심리적인 기능(psychological functioning)과 학교상황, 가족, 친구관계와 같은 여러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능을 통해 자기상이 명확해 진다 (Offer 등,

1981). 따라서 자기상이란 자기개념이나 자기 존중감, 가치감에 비해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개인의 생물학적 변화, 인지적 변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즉 청소년기가 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신체적, 생물학적 성숙이며 이로인해 그리고 주변 상황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신이 지각한 자기상과 타인의 반응과의 불일치에 의해 자기상이 점차로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개인 내적, 그리고 외적 요인을 잘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자기상의 하위영역을 측정하여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자기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사회상황적 변화와 개인 내적 성숙요인을 생각해 보자.

자기상과 관련된 사회상황 요인

전 생애에 걸쳐 대인 간 상호작용은 자기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상황 요인이다. 게다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것이 자기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학교상황에서의 변화'이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이에 따른 학교상황의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국민학교에서는 한 교실에서 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던 교육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과목별로 여러 교사에 의한 교육으로 변화되고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점차로 가정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휴먼, 음주, 이성교제, 폭력과 같은 행동이 청소년기의 특정 학년에 따른 효과가 명백하며 (Blyth, Simmon, Carlton-Ford, 1983),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이러한 행동이 급증되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는(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최근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번째 변화로는 '가족간 관계의 변화'로서, 특히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 및 심리적 변화에 의해 부모를 포함한 성인에 대한 반응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자율성에 대한 증가된 요구를 촉진시켜주기 위하여 청소년과 부모는 그들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Steinberg, 1981).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적 관계는 '친구관계의 변화'이다. 아동후기나 청소년기로 가면서 설사 부모와의 관계 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료는 좀더 중요한 타인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동료들 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좀더 구조화되어 가고 또 더 많은 집단들이 생기게 된다(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Jarcho, 1984).

자기상과 관련된 성숙 요인

청소년기 자기상에 영향을 주는 두가지 요인은 생물학적 성숙과 인지적 능력의 변화이다. 신체적 크기, 2차 성징과 같은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신체적,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타인이 그들을 보는 방법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인지적 성숙이 일어나 '사고에 대한 사고(thinking about thinking)'와 같은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됨에 따라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등 스스로에 관한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사고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하여 자기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청소년기의 자기상에 정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파

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요인의 변화로 인해 자기상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것을 측정하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행동 특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 Offer, Ostrov, 및 Howard(1982)은 10년 동안 종단적인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여 13세에서 19세에 걸쳐 11개 하위영역의 130문항에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자기상 검사(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OSIQ)를 개발하였다. 그들의 초기 관심은 청소년기를 설명하는 고전적인 관점과 경험적인 관점의 논쟁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즉 청소년기가 육구나 충동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혼란과 변민의 시기라는 정신분석학자들의 견해(Blos, 1962; Freud, 1958)에도, 또 청소년기가 심리적인 문제, 부모와의 갈등, 성격이나 자기개념의 갑작스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Bandura, 1964; Dusek & Flaherty, 1981)에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검사는 5개국의 언어로 번안하여 미국의 유럽, 중동 및 아시아 계층의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정상, 비행 청소년 및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체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검사 자체의 신뢰도나 타당도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발달 및 변화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 후 고학년의 국민학생에 해당하는 좀 더 어린 연령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및 Jarcho(1984)은 어린 연령에 적합한 9개 영역의 98 문항으로 축소하여 청소년용으로 만들었다. 즉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과 같은 하위영역을 제외시키고 좀 더 쉬운 문항으로 수정한 청소년용 자기상 검사(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IQYA)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거쳐 어린 연

령에서 고등학생에 걸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행동에 유용한 검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9개의 하위영역을 심리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방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동기와는 구별지워지는 시기이다. 생물학적 변화와 사회적인 요구가 남녀에게 달리 일어나게 됨에 따라 심리사회적 발달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남자에 비해 여아가 더 많은 긴장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또 이와 같은 긴장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더 두드러진다고 한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성차이가 있는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가 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된다(Fenzel, 1989). 예를 들어 친구와의 전화시간이 급증하게 된다는지, 친구의 감정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현상은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국민학교 5, 6학년을 청소년 이전기, 중학교 1, 2학년을 청소년 중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청소년 중기, 고등학교 2, 3학년 연령을 청소년기 후기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또래 집단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Gavin & Furman, 1989)에서 보면 청소년 이전기와 청소년 후기 간의 발달 양상이 유사하며, 청소년 초기와 중기 간의 양상이 유사하다. 청소년 초기와 중기에 여러 변화를 보이던 많은 행동들이 청소년 후기가 되면 청소년 이전기 상태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경우 청소년 초기가 되면서 이전 시기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후기로 가면서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발

전하게 되며, 따라서 청소년 이전기와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연령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지적되고 있다 (Turner & Mo, 1984).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가치체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 가정이나 학교, 계층사회의 적응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연령에서 자신의 성별에 따른 사회의 요구가 급증하게 되므로, 성별에 따른 분리와 규율에 따른 순응은 증가하며, 독창성이나 개별성이 점차로 감소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연령변화에 따라 심리사회적 발달이 달리 일어난다는 것은 신체적 성숙정도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설명된다. 예를 들어 사춘기 발달시기가 심리적 발달에 아주 중요한 변인으로서는 빠른 성숙자가 더 심리적 적응 문제가 많고 정서 상태가 더 부정적이다. 그러나 남녀 간에 성 차이가 있어 남자들은 빠른 성숙자가 더 이완되어 있고 덜 의존적이며 더 자신감 있고 성인과 또래에게 더 매력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여자들에서는 결과가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빠른 성숙자가 인기가 없으며 사회적 책임과 내적 혼란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rockett & Petersen, 1987).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춘재, 오가실, 정옥분, 1991)에서 보면 대체로 더 성숙한 청소년이 덜 의존적이고 더 자신감이 있으며 좀 더 긍정적인 정서상태와 충동통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 남녀 간에 차이가 있어 여자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 성숙이 빠른 집단이 가족관계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성숙이 늦은 집단이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춘

기 성적인 성숙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전반적인 영역 모두에 일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양상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한 연구에 의하면 서양문화권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동양문화권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국과 독일의 13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정서상태, 충동통제, 신체상, 가족관계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대처능력과 조절능력과 같은 적응력에서 미국청소년이 더 긍정적인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이 높은 독일 남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inhausen, Offer, Ostrov, Howard, 1988). 서양 문화권과는 달리 중국 청소년의 경우는 미국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관계,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목표에 있어서는 좀 더 부정적이며, 이성 관계에서 있어서는 더 보수적이었고 주변이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조절능력에서는 더 긍정적이었다 (Turner & Mo, 1984).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문화권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비교하는데 사용되어 온 자기상 점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국민학교 5학년에 청소년기가 안정되어 가는 고등학교 2학년의 시기 동안 어느 연령에서 심리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

서울 시내 소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학생을 제외하고 국민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 855명, 여학생 900명 모두 1755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서울의 10개 지역에 소재하는 각 1개 학교에서 학년별로 남녀 각 1개 학급씩을 표집하였다.

측정 도구

앞에서 설명한 청소년용 자기상 검사(SIQYA)를 사용하였으며, 각 영역마다 정적(+), 부적(-)인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원 척도는 9개 하위영역의 98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7개 영역의 75문항만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국민학생의 경우 문항 수가 많아짐에 따르는 피로등의 문제를 배제하고자 비교적 우리나라 현실과 이질감있는 문항으로 된 직업-교육목표와 우월한 조절력 영역을 제외시킨 것이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형의 5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부적(-)인 방향의 문항내용은 점수를 역순으로 계산하여 각 문항의 평정치를 합한 점수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9개의 하위영역중 다음의 7개 영역만을 선택하였다.

심리적 발달

① 정서상태 (emotional tone)

정서상태란 우울 기분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나는 쉽게 화를 낸다', '나는 쉽게 상처받는다', '나는 불안해 한다'와 같은 부정적인 항목(우울, 외로움, 불안)과 '화를 참는 편이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항목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이 적은 더 나은 정서상태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 11개 문항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78이다.

② 충동통제(impulse control);

이것은 분노나 다른 충동적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예를들어 '나는 대체로 화를 참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난폭해진다'와 같은 모두 8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이전 연구(Ebata & Petersen, 1986)에 의하면 이 척도는 학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 우울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변별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46이다.

③ 정신병리(psychopathology)

이 영역은 괴상한 사고, 혼동감, 과대망상, 환각을 측정으로 하는 것으로, '나는 항상 뭔가를 두려워한다', '나는 혼란에 빠질 때가 많다', '나는 이대로 살기보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덜 병리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68이다.

이와 같은 세가지 영역을 기분(mood)이라고 명명한 경우(이춘재등, 1991; Crocetti & Petersen, 1987)도 있다.

사회적 발달

사회적 발달을 사회적 관계에 관한 영역과 사회에 대한 적응력 영역 그리고 신체상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상 영역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나 모습에 관한 지각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발달 영역에 포함시켰다.

④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

이것은 가족내 관계의 질(quality)에 관한 청소년의 지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가족관계, 부모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각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17개 문항이다. 그 예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어느 한 분을 더 좋아한다', '대체로 내가 집에서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된다',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등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78이다.

⑤친구관계(peer relationship)

이 영역은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태도와 만족, 친구사귀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만족도와 유능감을 측정하는 8개 문항이 속한다. 예를 들어 '나는 여러사람들의 모임에서 즐겁게 지낸다', '친구를 사귀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등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62이다.

⑥대처능력(mastery and coping)

이것은 10개의 문항으로 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 또는 예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유능감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66이다.

⑦신체상

자신의 신체와 신체 발달 상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9개 문항이 이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면 '나는 현재의 내 키에 만족하고 있다', '남들이 툴림없이 내 신체발육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등이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46이다.

결 과

심리적 발달에 해당하는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영역과 사회적 발달 영역인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대처능력, 그리고 신체상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까지의 7개 연령과 남녀 성별에 따른 각 하위 영역별 평균 값과 표준편차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적인 관심으로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집단을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개로 계층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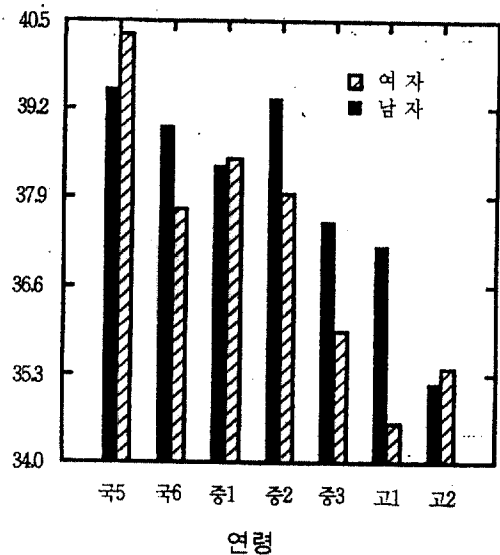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서상태

심리적 발달

① 정서상태

우울, 외로움, 불안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상태 하위검사에서 7개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성별 간의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부정적이었다($F_{1,1754}=6.07, p<.05$).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로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지니고 있었는데($F_{6,1754}=14.33, p<.001$), 특히 그 차이가 국민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

학교 1, 2학년에서 유의미하였다($F_{1,1741}=2.10$, $p<.05$). 따라서 국민학생에 비해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정서상태가 부정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의 연령수준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개로 분류한 다음 계층 수준을 상, 중, 하의 세개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계층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_{4,1754}=3.63$,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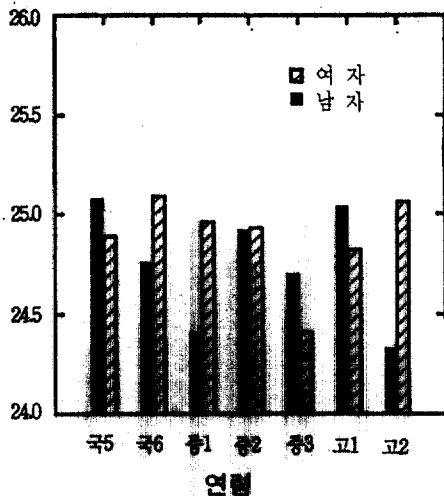


그림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충동통제

국민학생 집단에서는 계층에 따라 정서상태가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으며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상집단이 중집단과 하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다($F_{5,749}=2.31$, $p<.01$). 따라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정서상태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충동통제

충동통제 영역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에 따른 그 어떤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③정신병리

정신병리 영역에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F_{6,1754}=3.58$, $p<.001$), 특히 중학

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_{1,1741}=2.10$, $p<.05$). 즉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교 2학년에서 혼란스럽고 항상 두렵고, 숨어서 울고싶을 때가 많다는 정신적으로 병리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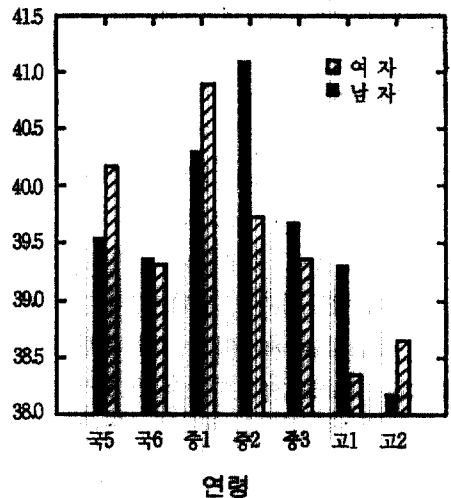


그림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신병리

사회성 발달

④가족관계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 하였는데($F_{6,1754}=6.21$, $p<.0001$), 국민학교 5학년에 비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더 부정적이었다($F_{1,1741}=2.10$, $p<.05$). 따라서 가족 간의 불만족이나 갈등은 국민학생에 비해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후 고등학교 시기에 걸쳐 부정적인 지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 있어 성별과 계층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F_{2,1754}=7.21$, $p<.0001$). 남학생에서는 계층이 상인 집단이 중, 하집단에 비해 가족들 간의 관계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F_{1,749}=2.31$, $p<.01$), 여학생들에서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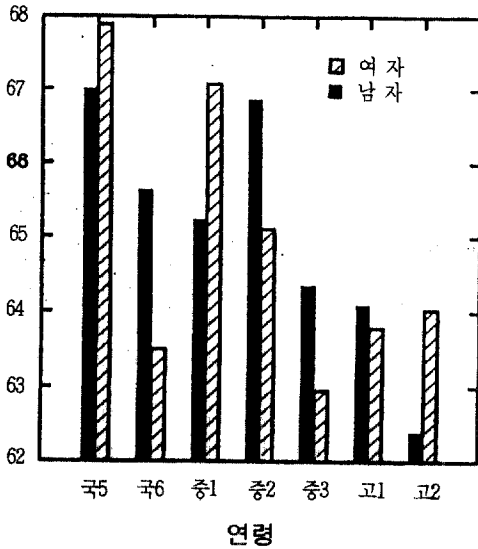


그림 4 성별과 연령에 따른 가족관계

⑤친구관계

친구관계 영역에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_{6,1754}=7.82, p<.001$), 연령 증가에 따라 친구 사귀기가 힘들고,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지고, 남들이 나를 따분하게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특히 국민학교 5학년에 비해 중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1, 2학년생이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F_{1,1741}=2.10, p<.05$). 계층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F_{2,1754}=4.80, p<.01$), 계층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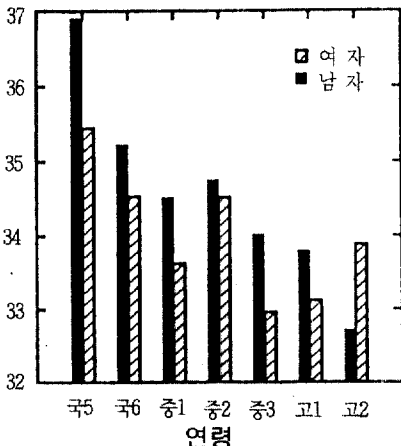


그림 5 성별과 연령에 따른 친구관계

⑥대처능력

성별의 효과가 유의미하여($F_{1,1754}=4.55, p<.05$)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대처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는데($F_{6,1754}=9.23, p<.001$), 국민학생보다 중학생(1학년, 3학년)이, 국민학생보다 고등학생(1,2학년)이 자신의 대처능력이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며($F_{1,1741}=2.10, p<.05$),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로 보아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은 국민학생에서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으나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급격히 부정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외 연령과 계층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여($F_{4,1754}=8.35, p<.0001$), 연령이 높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대처능력이 긍정적이었다. 국민학생에서는 중 계층집단에서 긍정적이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계층이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대처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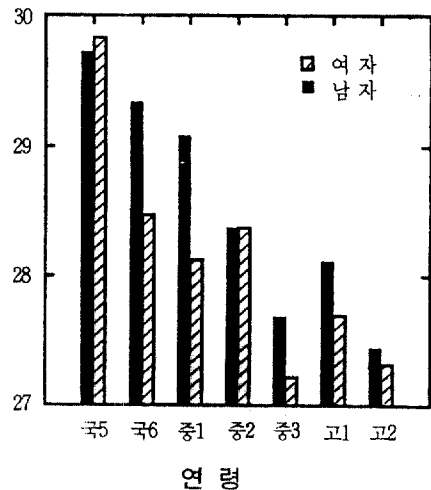


그림 6 성별과 연령에 따른 대처능력

⑦신체상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신체상 영역에서는 성별($F_{1,1754}=13.26, p<$

.001)과 연령별 효과($F_{3,1754}=3.84, p<.001$)가 유의미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신체상을 지니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국민학교 5학년에 비해 6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이 더 부정적인 신체상을 지니고 있었다($F_{1,1741}=2.10, p<.05$). 즉 국민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급격히 부정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 계층과 성별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여($F_{2,1754}=3.78, p<.05$), 남학생에서 계층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F_{1,748}=2.31, p<.01$), 여학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 계층과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여($F_{4,1754}=3.12, p<.05$), 국민학생 집단에서는 계층이 중인 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그리고 중학생에서는 상 집단이 자신의 신체 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F_{1,748}=2.31,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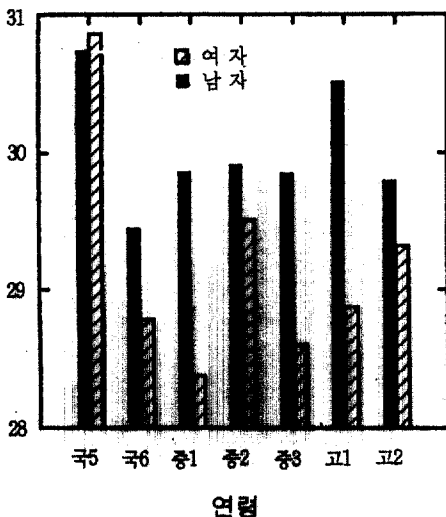


그림 7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신체상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

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걸친 심리 사회적 발달의 변화를 자기상(self-image) 검사를 통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아동기에 비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리라고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점사 7개 중 3개의 하위 영역에서만 나타났다. 즉 정서상태, 대처능력, 신체상 영역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긍정적인 점수를 보였다.

우울, 외로움, 불안상태를 측정하는 정서상태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긍정적이었다. 이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는 성별의 차이가 있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가 더 우울한 경향을 지닌다는 연구(곽금주와 문은영, 1993; Petersen, 1988)와 여아의 우울한 상태가 더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Ebata (1987)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내 몸매나 체중에 자신이 있고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한 신체상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신체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성적성숙 정도와 신체상 간에 있어서 여학생의 경우 성적성숙과 신체의 만족도간에는 관계가 없으나 남학생의 경우 신체 성숙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신체상을 지니고 있었다 (곽금주와 문은영, 1993; 이 춘재 등, 1991). 이와 유사한 특징으로 대처능력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대처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신체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대처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이춘재 등, 1991)에 미루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신체상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예견되는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에 따른 차이

충동통제 차원을 제외한 6개의 하위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정서상태 차원에서 보면 국민학생에 비해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해 하는 정도가 급격히 증가하나, 정신병리 영역에서 보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교 2학년에서 혼란스럽고 항상 두렵고, 숨어서 울고 싶을 때가 많다는 정신적으로 병리현상을 보였다. 국민학교 연령에 비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우울하거나 정서적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어야 불안하고 외로운 정서적인 변화를 지각하게 되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학년이 높아갈수록 단순한 우울기분 이상의 병리적인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사춘기에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변화에 의해 부정적인 정서를 지각한다기 보다, 학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학입시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교육환경이나 또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점차로 정서적으로 병리현상이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의 불만족이나 갈등은 국민학생에 비해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후 고등학교 시기에 걸쳐 부정적인 지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 수록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현상은 다른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김인경, 1993; 이춘재 등, 1994). 이러한 현상 역시 고등학교에 들어가 대학입시 등 학업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관

련하여 부모와의 불화가 급증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자살 원인 중에서, 학업성적, 진학좌절이 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불화가 갈등이 21%를 차지하였다는 연구(원호택, 1987) 결과에서 보듯이 고등학생 연령의 경우,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시기에 비해서 청소년기의 가족관계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생물학적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학교나 주변환경의 변화도 일어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 인물과의 갈등을 먼저 겪게 된다. 또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자녀를 둔 부모 역시 발달과정 중에 있으며 처음으로 맞이하는 중년기를, 노인기를 시작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 만큼 큰 갈등이나 혼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중년기 위기(mid-life crisis)를 겪고 있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자신의 개인적 발달에 의한 것 뿐 아니라 부모의 변화와 상호작용하여 훨씬 더 큰 갈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정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족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위기감을 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젊은 층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일어나고 좀 더 융통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겠다.

연령 증가에 따라 친구관계도 부정적으로 되나 특히 중학교 3학년을 지나면서 부정적으로 되었다. 그 이전이나 이후 연령에 비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연령에서 동료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또 더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Gavin 과 Furman

(1989)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Sullivan의 설명대로 이시기의 우정관계는 내적인 친밀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또 친밀한 우정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을 때 다른 시기보다 더 소외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대처능력에 있어서 국민학생에서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으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것도 결정할 수 없고, 미래가 두렵다는 부정적인 대처양식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됨에 따라 점차로 대처할 상황이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영역들에서 나타는 연령의 변화는 중학교 이후나 고등학교의 연령에서 주로 일어났으나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인 아동 후기 또는 청소년 초기에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이 신체상 차원이었다. 국민학교 5학년에 비해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점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된다. 또 신체적 생물학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사춘기 초기인 이 시기에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학교 6학년 보다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 신체의 성숙정도에 따라 자신의 체중에 대한 만족도,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 (Crockett & Petersen, 1987)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효과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발달을 보였

다. 그러나 Gavin & Furman(1989)은 국민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청소년 이전기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이며 청소년 후기로 가면서 안정적인 심리 사회적 양상을 다시 보이게 되므로 서로 유사하나, 그 가운데 시기인 청소년 초기와 중기와는 전혀 다른 시기라 하였다. 즉 사춘기 초기에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부정적으로 지각될 수는 있으나 점차로 다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서 성인기로 가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하위 영역중 신체상 영역을 제외한 6개 모두에서 연령에 따라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발달만을 나타낼 뿐, 연령 증가에 따라 다시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영역은 하나도 없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후기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좀 더 부정적인 발달이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 발달에 있어 생물학적인 변화보다는 학업의 부담이나, 진로, 입시와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발달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3학년, 대학생에 까지 그 대상 연령을 확장하는 추후 연구를 실시하여야겠다.

3. 계층에 따른 차이

본 연구에서의 주 관심사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고 계층의 영향은 부차적인 것이었으나, 대체로 계층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계층이 높을수록 정서상태가 긍정적이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상 계층집단이 중, 하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친구관계에서는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이었다. 연령이 높으면 부정적인 대처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러

나 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어 연령이 높아도 계층이 높으면 비교적 긍정적인 대처능력을 지닌다. 신체상 영역에서는 성별로는 여아의 경우는 차이가 없으나 남아에서, 그리고 연령별로는 국민학생과 중학생에서 계층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 비해 공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경우 정신병리, 사회적 대인 관계, 대처 및 조절 능력과 같은 영역에서 훨씬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Turner와 Mo, 1984)와 일치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계층 수준이 구분되도록 표집 계층을 정하긴 하였으나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나 변별적인 계층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계층에 따라 발달 정도가 달라진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주변 사회적인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해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계층 효과는 다음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 져야 할 과제이다.

4. 앞으로의 과제

자기상 검사로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많은 연구들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각 하위영역에서의 신뢰도나 또 심리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들을 사용한 결과에 의한 타당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밝혀졌다(Petersen 등, 1984).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에서 보면 대체로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외국 연구만큼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비교적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가 .78이상인 영역도 있으나(정서상태, 가족관계), 대체로 다른 연구들(Petersen 등,

1984; 박금주와 문은영, 1993)에 비해 낮은 영역들이 있다. 특히 신체상 영역에서 외국의 .77-.81이고 박금주와 문은영 연구(1993)에서는 .61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46으로 특히 낮았다. 충동통제 문항에서는 외국의 .70 수준에 비해 박금주와 문은영 연구(1993)에서는 .57이었고, 본연구에서는 .46이었다. 물론 외국 연구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하나 문항수가 8개 정도로 적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은 것이 특히 신체상과 충동통제 영역에서의 문항들이 문화적으로 잘 맞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문항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수정 대처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자기상 검사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기가 심리적인 혼란이나 동요를 겪는 시기라는 믿음과 청소년기의 어떤 특징들은 각 개인에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반대 입장(O'Malley & Bachman, 1983)간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심리사회적 발달의 모든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어느 한 입장이 지지된다고 보아, 어떤 차원은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환경적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어떤 차원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상 검사의 여러 하위 영역에서 보면 청소년기 연령에 걸쳐 그 점수가 점차로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영역도, 점차로 부정적으로 되는 영역도 또는 연령에 따라 증가 감소의 곡선을 그리는 영역이 있다(Abramowitz, Petersen, & Schulenberg, 1984; Petersen 등, 1984). 특히 7개 연령에 걸친 발달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변화기준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겠다.

참 고 문 헌

- 박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6(2), 29-43.
- 박금주, 윤진, 문은영 (1993). 한국 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7(1), 12-27.
- 원호택(1987). 한국인의 자살에 관한 심리사회학적 이해. *현대사회*, 26, 66-86.
- 이춘재 (199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1(1), 29-45.
- 이춘재, 오가실, 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3(1), 89-102.
- Abramowitz, R.H., Petersen, A.C., & Schulenberg, J.E. (1984). Changes in self-image during early adolescence. In Offer, D., Ostrov, E., Howard, K. I. (eds.), *Patterns of adolescent self-image*.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Achenbach, T.M., & Edelbrock, C.S. (1981).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 1-82.
- Bandura, A. (1964). The stormy decade: Fact or fic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1, 224-231.
- Blos, P. (1962). *On adolescence: 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New York: Free Press.
- Blyth, D.A., Simmons, R.G., & Carlton-Ford, S. (1983). The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s to school transition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105-120.
- Coombs, A.W. (1981). Some observations on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In M. D. Lynch, A.A. Norem-Hebeisen, & K.J. Gergen (Eds.), *Self Concep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Cambridge, Mass.: Ballinger.
- Crockett, L.J., & Petersen, A. C., (1987). Pubertal status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findings from early adolescence study. In R.M. Lerner & T.T. Foch (Eds.), *Biological-Psychological Interactions in Early Adolescence: A Life Span Perspective*. Hillsdale, NJ: Erlbaum.
- Dusek, J.B., & Flaherty, J.F. (1981). The development of the self-concept during the adolescent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
- Ebata, A.T., & Petersen, A.C. (1986). Patterns of 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chievement.
- Fenzel, L.M. (1989). Role strains and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longitudinal trends and sex differenc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3), 211-226.
- Gavin, L.A. & Furman, W. (1989). Age difference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827-834.
- Hill, J. (1980). The family. In M. Jonson (ed.), *Toward Adolescence: The Middle School Years*. Chicago: Univ. Chicago Press.

- Kandel, D.B. & Lesser, G.S.(1972). *Youth in two Worlds*. Sanfrancisco: Jossey-Bass.
- Offer, D., Ostrov, E., Howard, K. I. (1982). *The Offer Self -Imag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A Manual.(3rd ed.)* Chicago: Micharel Reese Hospital.
- Offer, D., Ostrov, E., Howard, K. I. (1984). *Patterns of Adolescent Self-Image*.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O'Malley,P.M. & Bachman,J.G.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s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57-268.
- Peterse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Jarcho, H. D.(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I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93-111.
- Petersen,A.C.(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Rutter, M., & Garmezy,N (1983).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P.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ition. New York:John Wiley & Sons.
- Savin-Williams, R. C., & Demo,D.H. (1984). Developmental change and stability in adolescent self-concep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00-1110.
- Steinberg, L.D.(1981). Transformations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7, 833-840.
- Steinberg, L.D.(1985). The ABCs of transformations in the family at adolescence: Changes in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Presented at the Third Biennial Conference on Adolescence Research*.
- Steinhausen, H., Offer, D., Ostrv, E. & Howard, K.(1988). Transcultural comparisons of self-image in German and United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6), 515-520.
- Turner,S.R. & Mo,L.(1984). Chinese adolescents' self-concept as measured by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Journu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131-143.

Psychosocial development in terms of self-image in Korean adolescents (I)

Choon-Jae Lee

Keum-Joo Kwak

Catholic University

Osan College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t by the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IQYA). The subjects were 855 boys and 900 girls of 7 age groups from grade 5th to 11th. They were sampled from 10 areas in Seoul and classified by 3 social economic status. As results, the main effect of sex were found significant in the subtest of Emotional Tone, Mastery & Coping, Body Image. The main effect of age were significant in the subtest of Emotional Tone, Psychopathology, Family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Mastery & Coping, Body Image. The interaction effect of age by social economic status in the Emotional Tone, Mastery & Coping, Body Image and of sex by social economic status in the Family Relationship and Body Image were significant.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s and following studies were discussed.

부록. 각 하위영역에서 성별 연령별에 따른 평균값과 표준편차

	국5(255명)	국6(266명)	중1(250명)	중2(246명)	중3(256명)	고1(242명)	고2(240명)	전체(1755명)
심리적 발달								
① 정서상태								
남	39.50(7.37)	38.93(7.02)	38.35(6.92)	39.36(6.70)	37.54(6.52)	37.19(6.12)	35.18(6.24)	38.00(6.78)
여	40.30(6.98)	37.73(7.08)	38.45(7.67)	37.94(7.02)	35.95(6.86)	34.58(7.72)	35.39(6.34)	37.25(7.37)
전체	39.93(7.00)	38.27(7.06)	38.40(7.28)	38.67(6.97)	36.70(6.74)	35.88(7.07)	35.28(6.27)	37.62(7.08)
② 충동통제								
남	25.08(4.30)	24.76(4.66)	24.41(3.96)	24.92(3.78)	24.70(3.55)	25.04(3.69)	24.33(3.48)	24.74(3.93)
여	24.89(5.24)	25.09(4.50)	24.96(4.45)	24.93(4.08)	24.41(4.17)	24.82(4.09)	25.06(3.82)	24.88(4.37)
전체	24.98(4.83)	24.94(4.57)	24.68(4.21)	24.93(3.92)	24.55(3.88)	24.93(3.89)	24.69(3.66)	24.81(4.16)
③ 정신병리								
남	39.55(7.01)	39.37(6.94)	40.30(6.84)	41.10(6.50)	39.68(5.81)	39.31(5.69)	38.18(5.67)	39.66(6.41)
여	40.17(7.48)	39.31(6.84)	40.89(7.19)	39.72(6.74)	39.36(6.15)	38.35(5.93)	38.65(6.59)	39.50(6.76)
전체	39.88(7.26)	39.33(6.87)	40.59(7.00)	40.43(6.64)	39.51(5.98)	38.83(5.82)	38.41(6.13)	39.58(6.59)
사회적 발달								
④ 가족관계								
남	67.00(9.60)	65.62(8.95)	65.22(10.3)	66.86(8.17)	64.34(9.92)	64.09(9.04)	62.39(10.2)	65.07(9.57)
여	67.89(10.54)	63.50(10.74)	67.07(9.45)	65.10(10.47)	62.95(9.34)	63.78(10.4)	64.03(10.73)	64.89(10.38)
전체	67.48(10.11)	64.45(10.02)	66.12(9.92)	66.00(9.38)	63.61(9.63)	63.93(9.73)	63.19(10.47)	64.98(9.99)
⑤ 친구관계								
남	29.72(5.21)	29.34(4.68)	29.08(5.01)	28.37(4.16)	27.69(5.02)	28.11(4.58)	27.45(4.01)	28.53(4.73)
여	29.83(5.39)	28.47(4.88)	28.12(4.56)	28.37(4.98)	27.22(4.65)	27.70(4.94)	27.32(4.99)	28.18(4.98)
전체	29.78(5.30)	28.86(4.80)	28.61(4.81)	28.37(4.57)	27.44(4.82)	27.90(4.76)	27.39(4.51)	28.35(4.86)
⑥ 대처능력								
남	36.90(6.05)	35.23(5.20)	34.51(5.32)	34.75(4.69)	33.79(5.54)	32.72(5.16)	34.54(5.41)	38.0(6.78)
여	35.45(5.84)	34.53(5.33)	33.62(5.14)	34.51(5.09)	32.96(5.83)	33.12(5.12)	33.88(5.64)	34.04(5.49)
전체	36.11(5.97)	34.84(5.28)	34.08(5.24)	34.63(4.88)	33.46(5.48)	33.45(5.33)	33.29(5.42)	34.28(5.46)
⑦ 신체상								
남	30.74(5.73)	29.45(5.35)	29.86(5.17)	29.91(5.00)	29.85(4.91)	30.52(5.14)	29.80(4.24)	30.02(5.09)
여	30.86(4.76)	28.78(4.35)	28.37(4.72)	29.51(3.99)	28.59(4.45)	28.87(4.46)	29.32(4.58)	29.20(4.54)
전체	30.81(5.21)	29.08(4.83)	29.14(5.00)	29.72(4.53)	29.19(4.71)	29.69(4.87)	29.57(4.41)	29.60(4.83)